9월 18일 회고록

오늘 배운 내용과 느낌

오늘은 프론트엔드의 기본 요소인 HTML, CSS, JavaScript에 대해 학습했다. HTML을 통해 웹페이지의 구조와 요소를 정의하는 방법을 다시 확인했고, CSS로는 레이아웃과 스타일을 지정하여 시각적으로 개선하는 연습을 했다. 특히 **폼 태그(form tag)**를 활용한 로그인 화면 구성, 그리고 GET/POST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며 웹에서 데이터가 전달되는 흐름을 배웠다. 또한,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의 엘리먼트(Elements) 패널을 활용해 코드가 어떻게 실제 화면에 반영되는지도 확인했다. 더불어 웹서버(Web Server)와 WAS(Web Application Server)의 차이, nvm과 npm의 개념과 역할 같은 기초적인 웹 개발 환경 지식도 접하면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이전보다 친숙한 영역이라 수업이 보다 흥미롭게 느껴졌고, 팀원들과 학습 방향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시간이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더 해보면 좋을 것

앞으로는 **CSS와 JavaScript의 기초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예를 들어, CSS에서는 박스 모델, Flexbox, Grid 레이아웃을 활용한 반응형 디자인을 더 연습하고, JavaScript에서는 DOM 조작, 이벤트 처리, 간단한 로그인 검증 로직 등을 구현해보면 좋겠다. 또한, 지금까지 만든 HTML·CSS·JS 기반의 웹페이지를 직접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보면서 실습 위주로 익히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나아가 웹서버와 WAS의 개념을 더 깊게 공부해 백엔드와의 연계 흐름을 명확히 이해하면, 이후 스프링(Spring) 학습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남혜린---

프론트엔드로 넘어오니 조금 숨통이 트인다. 이전보다 조금 아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수업이 꽤 괜찮게 느껴진다. 다만 CSS와 JavaScript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씩 채워나가야겠다.

오늘은 팀원분들과 향후 공부 방향성도 함께 논의해보고, 오프 스터디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잡아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다. 6조 최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역시나 부족한 자바 부분을 보충하려고 공부할 것 같다. 오늘 하루는 프론트엔드와 팀 스터디, 그리고 자기 계발까지 균형 있게 보낸 느낌이라 만족스럽다.

--최형규--

휴우~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상기되었던 뇌가 숨을 쉬는것같다.

그렇다해도 외울게 없는것도 아니고, 자바는 오늘도 볼 거지만 무언가 여유도 있고 재밌는 하루다

9월 18일 회고록

오늘은 좀 내 자바력을 객관적으로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즐거이 감당해내자 아울러 팀내에서 이미 html, css, js로 구현한 웹사이트도 보았는데

무언가 html이 오늘 강의 였다면 회고때 css 를 한 느낌으로 오늘 수업 들은게 더욱 탄탄해 져서 좋았다.

팀내에서 공부량에 따른 실력차가 있지만, 모두 한걸음씩 성장하길 바라고, 계속 성장하는걸 보는게 즐겁다

오늘의 키워드

웹서버 vs was

nvm npm

<>엘리먼츠

폼태그

로그인 get,post 방식

--진솔빈--

오늘의 회고

자바의 기본 다지기 및 트랜젝션, JDBC까지 끝내고 겨우 한 숨 돌리는 html, css, javascript구간이 왔다. 마치 가시밭길 걷다가 잠시 오는 평지를 만난 느낌이랄까. 일단, 다행이다. 이렇게 한 숨 돌릴 기간동안 부족한 부분 복습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지금까지의 느낌은, 내 목구멍에 커다란 돌을 일단 삼켜야 하는 느낌이었다. 일단, 뭐가 됐던 과제들을 쳐내면서 감을 잡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리를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프론트엔드 기간동안에 빠싹 이걸 내걸로 만들기 위한 다지기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따뜻하게 Spring을 맞을 준비가 되어있어야만, 백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한 여정의한 걸음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되는대로 쑤셔넣고, 쳐내고, 뭔가 줄줄 세어나가는듯 하지만 그럼에도 페이스 잃지 않고 하던대로. 쭉 가자.

그러면 잘 되겠지.

--김도은--

앞으로는 CSS 레이아웃과 JavaScript 이벤트 처리 연습을 통해 실습 경험을 쌓고, Rest API와 nginx와 같은 개념을 추가적으로 공부해보면, 시스템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다.

9월 18일 회고록 2